

# 더 넓어지고 조용해진 KTX...주말 미운행 아쉬워

국내서 가장 빠른 KTX-청룡열차 타보니

3분32초만에 시속 300km...송정~용산 1시간39분  
KTX-산천보다 136석 늘어난 515석...가격 동일  
다리 뻗어도 앞좌석 민폐 없고 좌석마다 창문 있어

“더 빨라 지고 시설은 좋아졌지만,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으니 아쉽네요.”

25일 오전 9시 20분 광주시 광산구 광주 송정역 9번 승강장은 기대감에 가득찬 시민들로 가득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KTX-청룡' (청룡)의 시승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지역민 330여명이 출발이 한시간여 남았지만 설렘을 안고 역사를 찾은 탓이다.

파란색 열차 앞으로 삼삼오오 모인 승객들은 기념사진을 찍기 바빴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온 부모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들뜬 표정의 어린 아이들은 열차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시승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온 이들도 있었다.

수원에서 아들 장성재(10)군과 시승을 하기 위해 열차에 오른 성재(여·45)씨는 “아이에게 인상깊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 현장체험학습을 하려왔다”며 “아이가 좋아해서 마음이 좋다”고 웃었다.

동력분산식으로 개발된 청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고속철도 중 가장 빠르다.

기존 호남선을 달리던 KTX-산천(산천)은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이었지만 청룡은 320km로 운행 가능하다. 청룡은 시속 300km까지 도달하는 데도

3분 31초가 걸린다. 기존(KTX-산천, 이하 산천)에 비해 1분 44초가 줄었다.

좌석수도 515석으로 산천(379석)에 비해 35% 늘었다. 청룡을 타고 광주송정에서 출발해 용산까지 1시간 39분 걸린다. 산천을 타는 경우(1시간 50분 소요)보다 11분 밖에 줄지 않아 아쉬울 수 있지만, 철로 환경이 개선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10시께 승강문이 열리고 발판이 내려오자 승객들은 재빨리 탑승했다. 탑승한 승객들은 차량이 더 넓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좌석 공간(106mm→126mm)과 객실 통로(450mm→604mm)가 더 넓어졌다. 창문 역시 좌석 1개 당 1개로 구성돼 개인별 창문을 여닫기 용이해졌고 사생활 보호 문제도 개선됐다. 우등실의 경우 모니터도 기존 19인치에서 21.5인치로 커졌다.

또 청룡은 흡음재를 보강해 소음 문제도 개선해 실내도 더 조용해 졌다.

그럼에도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기도 화성에서 시승을 위해 찾은 김윤수(20)씨는 “평소 산천을 자주 타는데 청룡은 개방감이 더 있고 폭도 넓어 좋다”며 “국내에서 가장 빠른데다 안정감도 있어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KTX-청룡 호남선 시승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열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고 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KTX-청룡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이날은 승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열렸다.

열차 여행에서 카트에서 팔던 사이다와 샴은 계란의 향수를 되살리기 위해 승객들에게 쏘드기와 사이다 등 주전부리를 제공했다. 또 가장 멀리서 온 승객, 어린 아이 등에게 KTX 20주년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새벽 4시 30분부터 파주에서 찾은 김진려(여·60)씨와 친구 김정현(여·68)씨는 “직장을 하루 쉬

고 친구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왔다. 가장 멀리서 온 승객으로 쏘드 선물도 받았다”며 “어젯밤부터 열차 시승식에 대한 기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용하고 쾌적해 정식 운행에서도 좋은 반응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승객들은 호남선에서 주말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청룡은 주중에는 호남선과 경부선(서울-대전-

동대구-부산) 모두 하루에 2차례 운행한다. 하지만 주말에는 경부선만 운행한다.

코레일 측은 “경부선의 경우 KTX 이용률이 봤을 때 115.7%였고 호남선은 99.1%라는 점에서 경부선에 2차례 편성했다”며 “2027년까지 17편성을 추가 도입해 고속철도 신규 노선 건설에 맞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대만 기자 kdi@kwangju.co.kr

## 학교 부적응 학생 대안 교육 체계 개편

시교육청, 용연학교·돈보스코 일원화...전교조 “현장 의견 수렴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안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집중과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을 학교 형태의 용연학교와 돈보스코로 일원화하고, 특별교육은 Wee센터(동·서부, 광산)와 28개 특별교육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2004년 설립돼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탁교육해 온 금관교실의 기능을 이들 기관에 이관해 역할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교육 전문기관은 문재행동·학생맞춤형 교육 기관 17개 기관, 전문 심리치료 기관 14기관(3기관 중복)으로 구축됐다.

용연학교와 돈보스코에서는 금관교실에서 다소 부족했던 교과교육과 체험 중심 교육, 전인교육, 노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ee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교육기관에서도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금관교실의 기능을 Wee센터와 용연학교, 돈보스코로 전환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부적응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한다.

금관교실이 문제학생이 다니는 공간이라는 부정

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양한 부적응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의 철학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금관교실 전환이 학교부적응학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집중과 확대를 통해 학교부적응학생의 아픔을 달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랜 동안 부적응학생 교육을 맡아온 금관교실을 폐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금관교실 폐지는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면서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교사·학부모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5·18진상조사위, 보고서 일부 오류 인정

송선태 위원장 사과 “수정은 추가 의견 덧붙이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개별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진상조사위는 25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활동 조사결과 설명회’를 열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광주 지역 여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해 고성이 오갔다.

5·18유공자 등은 개별 조사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일병 사건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자 진상조사위 측은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수정방안에 대해 조사 내용에 추가 의견을 덧붙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개별 보고서에서 5·18 사망자 명단에 신인이 없는 ‘실종자’가 포함되어 있고, 첫 총상 사망자라는 김안부씨는 10개 점안 기록 중 1개에서만 총상 기록이 나왔는데

사인을 타박상에서 총상으로 바꾸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며 “군 당국에 의해 조작된 계엄군 측 사망자 수, 교도소 습격 정황 등을 조작 과정에 대한 조사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사망자의 위치를 ‘도청 부근’이라고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군 당국에 의해 왜곡됐다는 결론이 내려진 ‘전남경찰청 도경상황일지’ 등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과거 판결보다 후퇴했다”며 “주각이 전도돼 가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군·경 피해 보고서는 종합보고서에 인용될 때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한정적으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최근 4000여쪽에 달하는 개별 보고서를 압축해 1000여쪽 분량의 종합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며 “현재 검토를 거쳐 중복되거나 모순된 내용, 기존 판결을 거스르는 내용, 조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 등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서광주농협 advertisement with NH Bank, ZGM, and other services.